


| | | | | | |
|---|---------|--|---|--|--|
|  인천광역시 | | 보 도 자 료 | | 경 축 재외동포청 개청 | |
| | | 배포일자 | 2023년 6월 16일(금) 총 2매 | | |
| 담당 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담당자 | • 보건정책팀장 조상열 ☎440-2711 • 담당자 홍윤숙 ☎440-2712 | | |
| 사진(이미지) |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참고자료 |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 |
| 보 도 시 점 |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인천시, 국제성모병원과 함께 주문도 무료진료 개시
 - ‘1심 1주치병원’ 민·관 협력 도서지역 무료 진료사업 -
 - 100여명 주문도민 진료 ... 필요시 협력 의료기관 추가진료 연계 -

강화군 서도민의 주치병원인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주문도 무료진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주민 건강 챙기기에 나섰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16일 강화군 서도면 주문도에서 무료진료를 시작하면서 ‘1심 1주치 병원 민·관협력 도서지역 무료진료사업’을 개시했다고 밝혔다.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지난 2월 ‘1심 1주치병원’ 민·관협력 도서지역 진료사업 업무협약 체결로 서도면의 주치병원이 됐다.

강화군은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전체인구의 35%를 초과하는 초고령화 지역이다. 특히 서도면의 경우 그 비율이 51%에 달해 노령층에서 발생하는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검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검진에는 의사(전문의) 3명, 간호사 8명, 행정인력 8명을 포함한 총 19명의 의료진이 참여했다.

사전 예약한 서도면 주문도 주민 총 100명을 대상으로 고령층에 필요한 통증치료, 내과진료 상담, 침술, 부항, 한의진료 등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추후 추가진료 또는 수술이 필요한 주민에게는 강화군의 추천에 따라 협력 의료기관에서 무료 수술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석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 각별한 관심과 협력에 감사드린다” 며 “민·관 협력 도서지역 무료진료 사업이 행사성 순회진료가 아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민·관협력 업무협약 체결 후 도서지역 주민 652명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앞으로도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종합병원들과 협력해 주기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관련사진> 강화 주문도 무료진료사업

